

## 현대중공업(주), 전기차 핵심부품 품질인증

현대중공업은 네덜란드 DNV 인증원으로부터 전기자동차의 핵심부품인 구동전동기와 전자제어 장치에 대한 설계 제작 판매등 전 공정의 'QS 9000' 품질인증을 획득했다.

QS 9000 품질시스템은 GM 포드 다임러크라이

슬러등 세계 자동차업체의 '빅 3'가 공동으로 마련한 자동차 품질인증.

현대중공업은 이에 따라 전기자동차 판매가 본격화 되는 오는 2003년부터 연간 1백억원 이상의 신규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한국중공업(주), 멕시코 발전소용 보일러 3기 수주

한국중공업은 미국 벡텔사로부터 3천만달러 상당의 멕시코 복합화력발전소용 보일러 3기를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보일러는 825MW 용량으로 멕시코 라로시타(La Rosita) 복합화력 발전소에 들어갈 폐열회수용이다.

한국중공업은 이들 제품을 창원 폐열회수 보일러전용공장에서 제작, 오는 2002년 4월까지 현지에 공급할 예정이다.

미국 벡텔(Bechtel International Inc.)사가 건설중인 라로시타 복합화력 발전소는 멕시코 라

스팔마(Las Palmas) 지역에 건설되며 오는 2003년 4월에 준공되는 멕시코 최대의 복합화력 발전소다.

열회수 보일러는 가스터빈을 돌리고 대기중에 버려지는 배기가스의 열을 재활용해 스팀터빈용 증기를 만드는 복합화력 발전소의 핵심설비로 열 효율 및 경제성이 뛰어나 세계적으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국중공업은 아울러 미주지역 폐열회수 보일러 시장에 적극 진출, 지금까지 총 2억달러의 수주고를 올렸다.

## 한국중공업(주), 특수 열처리부문 수준급설비 갖춰 해외수주물량 20억弗 확보

발전설비 전문업체인 한국중공업(대표 : 윤영석) 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인 발전설비를 갖추고 지난

20여년간 국내외에 걸쳐 원자력발전소 6기, 수·화력 발전소 93기 등 총 100여기에 약 3MW의 발전설비를 공급했다.

올해 9월 한국중공업은 미국 GE와 6억달러 규모의 발전설비 장기공급 계약을 체결, 세계시장 동반 진출등 전략적 제휴의 가시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또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등지에 해수 담수화 공장을 수주, 건설함으로써 이 분야 세계 제일의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으며 앞으로는 아시아 등 물부족 국가에 마케팅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한중은 100톤의 전기로와 1만톤 단조용 프레스, 특수 열처리 설비등 세계적인 수준의 설비를 갖추고 미국과 일본 등지에 철강을 수출하고 있다.

특히 한국중공업은 케도(KEDO)가 추진하고

있는 북한 경수로 사업에 주기기 공급업체로 지명됐다.

남한의 17% 수준에 불과한 북한의 낮은 발전설비 용량을 감안할 때 상당 규모의 잠재수요가 존재할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고 있다고 한국중공업측은 밝혔다.

한중 해외사업 본부장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미국 및 남미지역 진출 등 해외시장 다변화 전략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며 "이들 지역과 함께 전통적 주력시장인 동남아시아 및 중동시장에 대한 수주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전개해 약 20억달러 규모의 해외물량 확보를 위하여 전 세계를 무대로 수주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 대한전선, UTP 케이블 카테고리 6 UL인증 획득

대한전선(대표 : 유채준)이 최근 근거리통신망용 UTP(Unshielded Twisted Pair)케이블 전 규격(2Pairs~600Pairs)에서 한국산업규격(KS)인증 획득과 더불어 근거리통신망(LAN용) UTP 케이블 카테고리 6에 대해 UL인증도 획득해 업계의 화제.

대한전선은 최근 UTP 케이블 카테고리 6급 4Pair(CMX, CM)에 대해 미국화재보험협회(UL)인증을 획득했다고 발표했다.

UTP(Unshielded Twisted Pair, 비차폐) 케이블은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는 초고속 인터넷

망 구축에 사용되는 차세대 동케이블로 이번에 대한전선이 UL인증을 획득한 카테고리 6은 음성 데이터 실시간 동영상을 최대 1Gbps까지 전송할 수 있는 최고 성능을 가진 케이블이다.

양재현 과장은 "이번 카테고리 6 UL인증 획득에 상당한 의미를 두고 있다"며 특히 "충분한 개발 시험 기간을 거쳐 생산했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하다"고 설명했다.

양 과장은 또 "이번 카테고리 6 UL인증 획득을 계기로 국내시장은 물론 해외시장에서 수요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 케이디파워, 계측제어기 美·유럽 공략 본격화 최고 제품 개발 위한 투자 집중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수배전반 등을 생산하는 벤처기업 케이디파워(대표: 박기주)가 바라보는 2001년은 동종업계의 불안한 전망과는 사뭇 다르다.

지능형 변전실과 전력제어기, 전력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시스템을 중심으로 수배전반의 기술 표준을 이끌어 가겠다는 케이디파워의 박기주 사장은 어려운 때일수록 기술력 있는 기업은 빛이 난다고 믿는다. 그래서인지 다들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내년 사업계획을 어렵지 않게 내수와 수출 모두 확대 쪽으로 잡았다.

박 사장은 "케이디파워가 생산하는 모든 제품은 디지털기술과 에너지절감기술, 웹기술의 3박자가 맞는 최고의 제품"이라고 밝혔다.

케이디파워는 전기업계 내년 총 시장규모에 대해 전선을 포함 전년 대비 9.0% 증가한 9조3,600억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주요 수출시장인 동남아 국가의 전력설비 시장 확대와 중국의 국제무역기구 가입에 따른 수요증가 등으로 뚜렷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회사는 올해 중국시장에 지능형 디지털 계측제어기 500만대 이상을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내년에는 동남아, 중국시장에서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수출선 다변화를 꾀해 미주와 유럽지역에도 수출계약이 성사 단계에 이르는 등 이 지역에 대한 공략도 본격화 할 방침이다.

박 사장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최고의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아, 2005년에는 전체 매출액 중 약 30% 이상을 미주 및 유럽지역에도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두산·스페코, 韓重 입찰 적격자로 선정

두산 컨소시엄과 스페코 컨소시엄이 한국중공업의 입찰 적격자로 선정됐다.

산업자원부는 가격입찰 참가 의향서를 제출한 두산과 스페코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중 입찰적격자 심사평가단의 입찰 적격여부를 심사한 결과

양사가 한국중공업 입찰적격자로 선정됐다.

두산 컨소시엄은 (주)두산 두산건설로 이뤄져 있으며 스페코 컨소시엄은 스페코 한라스페코 대아건설로 각각 지분이 구성돼 있다.

한국중공업 매각 주관기관인 한국산업은행은 양

컨소시엄이 재무구조와 인수자금 조달측면에서 모두 적격요건을 충족했다고 이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한국중공업은 정밀실사를 받은 뒤 입찰을 통해 민영화가 마무리 될 예정이다.

이번에 낙찰자로 선정되는 업체는 외환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15.7%의 지분에 대한 우선매입권을 부여받아 한중지분 51%를 보유할 수 있게 된다.

## 디이시스(주), 디지털 과전류 계전기 국산화로 각광

계전기 전문메이커인 디이시스(주)(대표 : 이창근)가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154kV 주변압기 후비보호 및 22.9kV 배전선로용 '디지털 과전류계전기'를 국산화, 한전등 수요처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

디이시스가 개발한 디지털 과전류 계전기는 기존에 사용하던 아날로그 값을 디지털 값으로 변환해 표시, 154kV 주변압기 등의 고압 전력설비의 안정적인 운용을 도모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썬지, 오동작, 부동작 등으로 인한 송배전 선로의 각종 사고로부터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력설비를 보호하고, 사고발생시 가장 빠르게 동작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고 신뢰성 디지털 과전류 계전기'로 평가 받고 있다.

또한 기존의 계전기 보다 보호정전 범위가 광범위하게 설정됐으며, 원격에서 계전기에 메모리(memory)된 각종 사고 데이터 및 현재 선로의

전류량, 계전기의 상태를 전송 받을 수 있는 첨단 제품이라고 회사측은 밝혔다.

이와함께 계전기를 제어할 수 있는 기능과 사고의 유형 데이터를 통해 사고의 원인 분석 및 향후 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디이시스의 이해진 상무는 "중전에 사용된 유도형 계전기 및 아날로그형의 계전기는 산업기술의 발전과 반도체 부품의 발달로 인해 점차 디지털화되어가는 추세이며 썬지나 기타 이상 상태에서 오동작이 발생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며 "디이시스가 국산화한 디지털 과전류 계전기는 기존 제품의 문제점을 완전히 해결한 첨단 제품으로서 지난 '99년부터 한전의 실증실험에서 단 한 건도 이상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디이시스는 이번에 국산화한 디지털 과전류 계전기를 국내 시장은 물론 해외수출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케이디파워, 절연저항 원격측정기 개발

전력벤처기업인 (주)케이디파워(대표 : 박기주)는 최근 절연저항을 온라인 상태에서 상시 감시해

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절연저항 원격측정기'를 개발했다.

이 제품은 주요 부하지점에 설치돼 각종 설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경보가 울리고 무정전상태에서 절연저항을 측정하도록 해 누전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감지할 수 있다.

특히 미세한 절연열화도 조기에 감지해 지락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자기진단 및 보정 기능 등을 갖고 있다.

또 12개의 키 입력을 통해 알람 설정, 채널 선택, 모드 선택 등을 간단히 작동, 작업자가 손쉽게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케이디파워는 이 제품을 사업화 중인 iKEN(인터넷 이용 실시간 전기안전서비스)의 웹(Web)기반 안전관리 서비스 시스템에 내년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대한트랜스, 네온변압기 개발

대한트랜스(대표 : 김봉균)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네온 변압기'가 고효율 에너지절감 장치로 각광을 받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 600만대의 네온싸인이 설치돼 있으며 이를 네온 변압기로 교체할 경우 전력에너지를 10%이상 절감할 수 있어 연간 175만KWh의 전력에너지 절감 효과를 가져온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네온변압기는 네온램프를 점등시키는데 필요한 에너지 공급원이다. 네온램프의 크기에 따라 소비전력이 증가하지만 부하규모와 관계없이 철심에서 손실되는 무부하손이 발생한다. 이것을 기존 제품보다 20%나 줄이고 코일재료인 동(銅)선에서 발생하는 전력손실을 15%이상 줄인 것이 바로 대한트랜스의 네온변압기다.

기존 제품에 비해 중량을 12% 정도 줄여 물류비는 물론 설치비를 줄인것도 이 변압기의 특징이다.

지난 '98년부터 시판돼 현재 50만대 가량을 이 제품으로 교체했다.

대한트랜스는 지난 '96년 6월부터 2년간 에너지관리공단 지원자금 1억7천600만원과 자체자금 1억1천500만원을 투자, 개발했으며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산신기술인 NT마크, 우수 부품소재 품질인증인 EM마크를 각각 획득했다.

지난해부터는 미국 현지에 특판점을 설치했다. 이 회사는 수출을 포함 지난해 85억원의 매출을 달성했으며 국내 시장점유율은 40%다.

대한트랜스는 향후 3년내에 250만달러의 수출과 국내시장 60% 점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는 115억원의 매출이 기대된다.

## LG전선, 국내 유일의 광모듈 개발

국내 유일의 광모듈 개발/공급업체인 LG전선 (대표 : 권문구)이 최근 라인증설 및 납품처 다변

화 등 광모듈 사업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LG전선은 지난 상반기 중 20억을 투자해 155/622Mbps급 광모듈 양산화 라인을 2배로 증설, 월 10,000개 이상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게 됐으며 내년 초까지 1개 라인의 추가 증설 등 지속적인 설비 확장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현재의 라인들은 연말까지(광통신 연구소에서) 안양공장으로 이전될 것이며, 추후 단계적으로 자동화될 것"이라고 말해 국내 최초로 광모듈의 대량생산 시스템이 갖춰질 것임을 시사했으며, 세계적인 공급부족 현상으로 인해 최근 세계적인 전송장비 업체들로부터 제품 설명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세계 광모듈 시장규모가 1조6천억원, 국내

시장 규모는 약 300억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2.5Gbps급 모듈과 차세대 광모듈로 불리는 SFF(Small Form Fctor)에 대해서도 내년 하반기 중 양산화 할 계획이며, 연평균 27%로 급속하게 팽창하는 세계 광모듈 시장에서 광모듈 전문 제조업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2002년까지 광모듈 및 기타 광부품 부분에서 1,000억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모듈 내부의 LD·PD칩 제조기술, 모듈의 회로설계기술 및 광섬유와 모듈의 align기술 등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LG전선의 광모듈은 세계시장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다"면서 "현재 경쟁사가 없는 국내는 물론 세계시장으로의 진출이 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LG산전, 차세대 가스절연 개폐장치 개발

LG산전(대표 : 손기락)은 최근 콘덴서를 사용하지 않는 가스차단기를 채택한 가스절연 개폐장치를 자체개발, 170kV, 50kA급의 전기중 모델을 시리즈화 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 콘덴서 내장형 제품은 콘덴서에 의한 이상전압 발생으로 보수 점검자요 감전사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완전 해결하는 한편 콘덴서 자체 고장요인을 원천적으로 제거해 안전성 및 신뢰성을 높였다.

가스절연 개폐장치는 발전소나 변전소에 설치되는 전력계통 설비의 주보호 장치로 지락, 단락 등

고장발생시에도 과도한 전류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차단시켜 고장을 방지해 준다.

LG산전은 이번 신제품 개발로 그간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세라믹 콘덴서를 사용하지 않게돼 연간 100만불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음은 물론 부품감소 및 조립시간 단축으로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LG산전은 이번 신제품 개발로 한전과 대단위 공장 등의 민수시장을 적극 공략, 내년에 약 40억원의 매출을 달성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대한트랜스 · 남북전기, 우수단체 표준제품 인증 획득

(주)대한트랜스(대표 : 김봉균)는 변압기, 트랜스, 램프, 안정기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으로 '72년 대한전기공업을 모태로 출발, 전기 네온트랜스와 관련된 고압 특수 변압기의 연구개발과 고압 방전 램프 및 이에 관련된 안정기의 연구 개발 그리고 전력 전자 관련 응용 연구 분야와 에너지 절약을 위한 최신 소재를 적용한 변압기 연구 개발 분야에 현재 주력하고 있다. KS, ISO 9001 등을 획득하고, '97년 유망선진 기술기업으로 인정받았

으며, 올해 9월에는 자체진단형 네온 변압기가 정 부조달 우수 제품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아울러, 1974년 설립된 남북전기(주)(대표 : 강영식)는 산업용조명분야 및 방폭전기 등의 제품을 개발하는 기업으로 KS표시 인증과 ISO 9001 품질시스템 인증을 업계 최초로 취득한 기업이다.

이번 우수단체표준제품인증은 나트륨램프, 나트륨 안정기, 저압나트륨안정기, 메탈할라이드램프, 메탈할라이드안정기에서 인증을 받았다.

## 비츠로테크, 한전 피뢰기물량 수주

(주)비츠로테크가 한전의 2001년 피뢰기 물량을 29억원에 수주했다.

비츠로테크가 한전에 공급하기로 한 제품은 애자형 피뢰기(Lightning Arrester)로 선로의 낙뢰 및 차단기, 개폐기의 개폐에 의한 써지(Surge), 선로의 청전, 전자유도 등에 의한 이상 전압의 억제 목적으로 사용되며, 어떤 환경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었다.

애자형 피뢰기는 한국전기연구소의 형식시험을

필한 제품이다.

비츠로테크는 올해 광명전기에서 새롭게 상호변경을 한 중전기 업체로, 애자형보다 더 가볍고 성능이 뛰어난 폴리머 타입의 피뢰기 개발을 통해 시장점유율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비츠로테크는 주력제품인 차단기, 개폐기 부분에서도 디자인을 개선, 신개념의 제품을 출시해 사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 제룡산업(주), 세계적 수준의 고효율·고성능·절전형 '아몰퍼스 변압기' 개발 업체

전기전력기기 분야에서 10여년간의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선진기술개발에 앞장서온 결과 국내 최초로 고효율 아몰퍼스 변압기를 개발하는 쾌거를 이룬 제룡산업(주)(대표: 박종태).

"인간과 환경을 먼저 생각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성 높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개발하고 있다"는 박 대표는 "개발도 중요하지만 애프터서비스(A/S)가 생명"이라고 강조한다.

제룡산업(주)은 지난 '86년 12월에 설립돼 배전급 전력용 변압기를 포함한 전력용 기자재를 생산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97년에는 벤처기업으로 전기기기 업체로서 국제적인 품질보증시스템인 ISO 9001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지난 '99년 1월 기술경쟁력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던 이어 9월에는 '비정질 자성재료를 사용한 변압기'로 과학기술부로부터 국산신기술(KT마크)을 인정받아 전기·전력기술의 선두주자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국내 최초로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은 아몰퍼스 전력용 변압기는 주요성분이 철(Fe)과 붕소(B), 규소(Si) 등의 혼합물을 용융 후 급속 냉각시켜 불규칙한 원자배열을 갖는 비정질 자성재료(Amorphous Metal)를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규소강판(Silicone Steel)을 사용하는 변압기보다 무부하손(철손)이 75~80% 절감되는 획기적인 에너지 절약형 고효율 변압기로 관련업체의 주목

을 받고 있다.

한편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금년 국내 총 전력수요는 212.2Twh에 이를 전망으로 오는 2004년까지 국내 전력수요는 매년 연평균 약 7.2%대의 성장세를 보여 2004년에는 총 전력수요가 약 300.6Twh대에 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의 배전급 전력용 변압기를 고효율 기자재 인증을 받은 제룡의 '아몰퍼스 전력용 변압기'로 대체할 경우 배전급 전력용 변압기의 총 무부하손(철손) 5Twh의 80%인 4Twh를 연간 절약가능하며 이는 대전광역시의 1년간 전력 사용량과 동일하다고 한다.

또한 이를 발전원가로 환산할 경우 연간 약 2천 3백60억원의 전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약 5천억원의 건설비용이 소요되는 45만KW급 화력발전소를 추가 건설할 필요가 없으며 특히 제룡의 아몰퍼스 변압기는 환경친화적인 제품으로 기존 변압기의 개념을 바꾸는 신화를 창조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최근에는 기존 일반 몰드 변압기의 국내 선두주자인 LG산전과 제룡이 빚어낸 탁월한 기술력의 결정체인 아몰퍼스 전력용 변압기를 바탕으로 '아몰퍼스 몰드 변압기'의 공동개발에 성공함으로써 다시한번 제룡산업의 우수한 기술력을 입증받을 뿐만 아니라 매출신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LG산전과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아몰퍼스 몰드 변압기'의 신제품 공동개발은 대기업과 유망중소벤처기업간의 기술협력을 통한 동반자적 사업관계를 정립한 좋은 성공 사례로 향후 변압기 시장구도에 큰 변화를 일으킬 전망이다. 제룡산업(주)은 그 동안 사업품목의 다각화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정보통신

분야의 신규사업에도 참여해 지난해 3백4억원의 매출 실적을 달성한 유망중소기업으로 금년에는 지난해 대비 10%이상 매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앞으로도 고객이 인정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더욱더 연구·개발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 두산, 발전사업 본격화

두산은 한국중공업 인수를 계기로 제네럴일렉트릭(GE), 알스툼, WH 등과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 발전사업 분야의 글로벌 패밀리(Global Family)에 적극 동참할 방침이다.

두산의 박용만 사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3M, 네슬레, 코카콜라 등 선진기업과의 제휴경험을 바탕으로 GE 등 선진기업과 전략적 제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사장은 특히 "한중이 오랫동안 GE와 기술계약, 제품 장기 공급 계약 등 매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며 "지분 참여를 통한 합작법인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글로벌 패밀리에 참여하겠다는 의미에 대해 박 사장은 "GE 등 선진 기업이 설계나 엔지니어링을 담당하고 한중이 그동안 가장 경쟁력 있다고 인정받았던 제작기술을 활용해 세계 발전사업 분야에 참여하는 것"이라며 "기업간의 가장 핵심적인 사업을 유지하면서 글로벌한 관점에서 개발, 생산을 조

율하는 것이지 단순히 하청을 받는다는 의미로 이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산측은 그동안의 체계적인 구조조정의 능력과 해외 산업 플랜트, 열병합 발전소 건설 운영 등에서 얻은 노하우로 한중 운영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GE, 알스툼과 전략적 제휴를 위해 맥킨지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두산은 앞으로 발전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개편함과 동시에 세계 25%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담수설비를 확대, 2년내 영업이익률을 10%이상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한중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진 담수설비로만 연간 5,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 사장은 이를 위해 "선진화된 전문 경영인제를 도입하고 성과에 근거한 평가보상 시스템을 도입할 것"이라며 "고용승계 원칙을 철저히 지키겠다"고 설명했다.



## 영화산업전기제작소, 에폭시 몰드형 MOF 범용화 앞장

“가격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시대흐름에 따라 에폭시 몰드형 MOF를 범용화 하고 가스입 MOF의 시장 확대에도 적극 앞장선다.”

영화산업전기제작소(대표 : 공호영)의 당찬 포부다.

이 회사는 '62년 설립 이래 MOF, CT(변류기), PT(계기용 변압변류기) 등 변성기 품목만 줄곧 생산해온 국내 변성기업계의 대표기업.

영화산업은 40년간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최근에는 몰드형 및 가스입변성기기 생산에 주력,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연매출 80억원 규모의 영화산업은 기술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제품의 품질이나 매출, 생산 규모 면에서 업계 선두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에폭시 몰드형 MOF 제조기술은 국내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 회사의 매출신장은 물론 업계 기술 진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화산업의 에폭시 몰드형 MOF는 기존 유입식 MOF에 비해 2배 이상 강화된 내구성으로 사고시

폭발이나 화재의 위험이 없으며 수명 또한 20년 이상으로 길다. 때문에 고가에도 불구하고 전국 지하철, COEX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중요 프로젝트에 중점 공급되고 있다.

지난 9월에는 현대중공업과 ABB를 제치고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약 8억원 상당의 MOF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최근 개정된 내선 규정에서 '밀폐된 공간에서는 몰드형 MOF를 설치'토록 규정, 향후 관련시장이 계속적으로 확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영화산업은 에폭시 몰드형 MOF 생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영화산업측은 “앞으로 절연재질이 에폭시수지에서 가스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에폭시 몰드형 MOF와 함께 가스입 변성기기에 대한 연구개발과 생산능력 확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부설연구소를 통해 신기술개발과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디이시스, 전력용변환기 대만 수출

계전기 전문생산메이커인 디이시스(주)(대표 : 이창근)가 국내 동종업계 최초로 국산 전력용 변압기(POWER TRANSDUCER)를 대만에 수출

했다.

이 회사는 그동안 대만 및 일본으로부터 수입 사용해 오던 외산 전력용 변환기를 독자기술로 100

% 국산화, 지난 10월과 11월 대만에 첫 수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도네시아에도 지난 '99년말부터 본 제품을 꾸준히 수출하기 시작해 현지 수요처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다고 회사 관계자는 밝혔다.

이창근 사장은 "이번 대만과 인도네시아 수출은 지속적인 기술개발과 품질 향상에 부단한 연구가 기울인 결과이며, 자사가 국산화한 전력용 변환기는 세계 어느 제품과 비교해도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 우수한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제품은 지난 '99년 4월 국내 최초로 KS를 획

득한 바 있으며, 주요 산업시설 등에 납품돼,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고 있다.

디이시스는 현재 일본시장을 겨냥해 샘플을 일본 미쓰비시에 의뢰 시험중에 있으며 이 시험에 통과할 경우 일본시장 진출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내 산업의 위축으로 2001년에는 내수 경기가 올해보다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내 시장 보다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전 제품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데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난방기기는 실내 적정온도 유지하여 사용!**

